

[반도체]

9월 전략: 높은 파도도 항로를 바꾸지 못한다

이수림 반도체 02-709-2661 surim.lee@ds-sec.co.kr

2026.09.08

대형주 비중확대 기회 구간

중간선거 해의 9월 계절적 약세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종은 8월 조정 이후 2027년 실적 개선을 선반영하는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8월 반도체 조정 → 9~10월 다음 해 실적 선반영'이라는 추정치 상향에 따른 주가 상승 패턴이 다시 나타날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 최근 소부장 종목 중심으로 상승세가 먼저 확산되는 점은 업종 전반의 위험 선호 심리 회복을 시사한다. 다만 9월의 높은 변동성과 최근 단기 급등을 고려하면 중소형주의 과도한 추격매수보다는 메모리를 중심으로 비중을 확보하고 9월 중 시장 조정 시 반도체 전반의 비중을 적극 확대하는 전략을 추천한다. 10월 중순부터는 중간선거 불확실성 완화와 2027년 이익 추정치 상향이 맞물리며 업종 랠리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메모리 업사이클에서 다음 해 실적 기대치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주가는 실제 컨센서스 상향에 수주~수개월 선행했고 3Q 후반은 다음 해 업황 가시성이 높아지는 구간이었다. 작년에도 SK하이닉스는 8월 22일 저점 형성 후 9월 초 단기 놀림을 보였다가 9월 8~10일 부근부터 추세가 전환되면서 11월까지 강한 랠리를 지속한 바 있다. DDR4 Spot은 7~8월 이미 급등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이는 전형적인 차년도 영업이익을 선반영하면서 나타난 주가 상승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작년처럼 9~11월 직선 랠리를 기대하기에는 시장 위치가 작년과는 다르다. 또한 중간선거 해의 9월 계절성을 감안하면 매크로 이슈를 반영하며 중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10~11월 본격적인 어닝 기반 랠리가 나타나는 경로를 예상한다.

2027년은 중소형주가 더 강할 것으로 전망

시장은 아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7E 영업이익 추정치를 점검하는 단계에 놓여있다. 결국 현재 반도체 주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메모리 업체의 2027E EPS 전망치 상향 조정 여부다. 2027년 DRAM/NAND ASP, HBM ASP와 B/G 전망치 상향이 나타날 때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반도체 업종에 대한 본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때는 대형주 중심으로 유동성이 먼저 쏠릴 수 밖에 없기도 하다. 다만 2027년에는 CapEx 확대의 후행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소부장으로 수익률의 중심이 이동할 수 있다. 2026년과 달리 2027년에는 대형주의 영업이익 YoY 증가율보다 일부 소부장의 영업이익 YoY 증가율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부장 Top-picks: 티에스이, 피에스케이홀딩스

다음과 같은 모멘텀들로 인해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은 후공정 밸류체인과 비메모리 노출도가 있는 종목들로 확산되고 있다. 1) HBM4 가격 인상 및 납품 본격화와 함께 HBM 신규 CAPA가 확대되고 있다. 2) TSMC가 CoW 공정까지 ASE 등 OSAT에 대폭 확대 위탁하기 시작하면서 OSAT들이 신규 라인 장비를 발주하고 있다. 또한 2027년에는 단순히 CoWoS 처리 웨이퍼가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CoWoS 인터포저가 약 9.5배 레티클까지 확대되며 물량 증가와 공정 복잡도 상승이 동시에 나타난다. 이에 따른 2027년 관련 장비 수요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3) 상반기 동안 강한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었던 전공정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도 역시 부각된다. 동사의 Top-picks는 해당 모멘텀을 반영하여 2027년 괄목할 만한 실적 성장을 보여줄 티에스이와 피에스케이홀딩스다.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